

작품성·대중성 갖춘 국내외 우수 공연 ACC 무대 오른다

'ACC 초이스' 2026 라인업 공개

6월5일 마이스키 트리오 무대로 시동, 다양한 장르 6편 선배 '전통과 현대' 아우르는 강렬한 감동·낭만적인 서사의 향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국내외 무대를 대표하는 공연을 한데 모은 'ACC 초이스' 2026년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공연을 엄선해 선보이는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외 무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의 문화 향유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ACC 초이스'는 우수 공연을 초청해 소개하는 ACC재단의 대표 기획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총 6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세계적인 클래식 연주자의 내한 공연을 비롯해 연극, 뮤지컬, 판소리, 해외 서커스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구성이 특징이다. 공연의 시작은 오는 6월5일 무대에 오르는 '마이스키 트리오'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그의 두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트리오 공연으로, 깊이 있는 앙상블을 선사할 예정이다. 깊은 서정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첼로, 섬세하면서도 대담한 피아노, 날카롭고 유려한 바이올린이 한 무대에



왼쪽부터 마이스키 트리오,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멜리히, 이자람 '눈, 눈, 눈'



서 호흡하며 실내악의 정수를 선보인다. 이어 7월11-12일에는 '2025 서울연극제' 우수 상 수상작인 연극 '돌아온다'가 무대에 오른다. 떠나간 사람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섬세하고 따스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8월14-16일에는 뮤지컬 '오지개 재밌는 가시나들이'가 관객들을 만난다. 한글을 통해 삶의 새로운 설렘을 발견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으로,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9월에는 클래식과 전통 예술 공연이 이어진다. 9월12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멜리히의 연주회가 마련돼 있으며, 18-19일에는 판소리 창작자이자 한국 공연계를 대표하는 소리꾼 이자람의 판소리 신작 '눈, 눈, 눈'이 펼쳐진

다. 톨스토이의 단편 '주인과 하인'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올해 'ACC 초이스'의 마지막 무대는 11월27-29일 호주 서커스 공연단체 '서카'(Circa)가 장식한다.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고전 발레 '백조의 호수'를 재해석한 서커스 '덕 폰드(Duck Pond)'로, 대담한 상상력과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색다른 무대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국내외 무대에서 큰 사랑을 받은 우수한 작품들을 ACC 무대에 올리게 돼 뜻깊다"며 "장르적 다양성과 대중성을 갖춘 공연을 통해 지역 관객들이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일상에서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ACC 초이스' 공연 예매 및 세부 일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호주 서커스 공연단체 '서카'(Circa)



뮤지컬 '오지개 재밌는 가시나들이'(왼쪽), 연극 '돌아온다'

세계로 향하는 거리 무대... '광주버스킹월드컵' 뮤지션 공모

동구문화관광재단, 내달 31일까지 접수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이 오는 5월31일까지 세계적인 음악 경연 페스티벌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에 참여할 실력 있는 뮤지션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광주버스킹월드컵'은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격년제 개최가 검토되기도 했으나, 축제의 연속성과 고정 팬층 유지를 위해 올해 개최를 결정했다. 재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본선 8강 규모로 축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는 오는 10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광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42개국 493팀(1천478명)이 참가해 글로벌 음악 축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참가 자격은 만 19세 이상 뮤지션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보컬과 악기 연주 등 가장 중심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가능한 팀을 대상으로 하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본선 진출팀에는 총상금 2천만원(4개팀 이상)을 비롯해 항공료 및 숙박 지원, 축제 기간 내 거리공연 기회, 글로벌 음원 발매 및 유통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 해외 주요 음악 페스티벌 프로그래머와 공연 디렉터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참가 뮤지션들에게 세계 무대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광주버스킹월드컵 경연 모습

올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음악을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거리공연을 확대한다. 본선 진출 8팀과 별도로 '버스킹프린지' 15개 팀을 선발해 총 23개 팀이 광주 도심 곳곳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뮤지션은 5분 이내 라이브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뒤 해당 링크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창현 대표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티스트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축제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광주의 가을을 빛낼 개성 있는 뮤지션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곁에 있어도, 멀리 떠나도 늘 그리운 그 이름

연극 '사랑해 엄마' 광주 무대... 내달 2-3일 5·18기념문화센터

가족의 소중함과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담은 연극이 광주 무대에 오른다.

(주)극단코스모스는 오는 5월2-3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연극 '사랑해 엄마'를 선보인다.

'사랑해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아들을 키운 한 어머니의 삶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희생을 그려낸 작품이다. 웃음으로 시작해 마지막에는 깊은 감동으로 이어지는 휴먼 스토리로, 대학로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흥행작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은 고된 생계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의 모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무뎠던 표현 속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누구나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공감의 정서를 전한다.

2015년 초연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관객과 만나온 이 작품은 2025년 춘천연극제에서 대



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가족 특유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구성 또한 특징이다. 일상의 소소한 장면과 감동적인 순간이 균형을 이루며 극의 흐름을 이끈다.

이번 공연은 조혜련이 연출과 출연을 동시에 맡았고, 김지선, 김효진, 정가은이 엄마 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5월2일 오후 2시와 6시, 3일 오후 2시 총 세 차례 열린다. /최명진 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